

# 김영록·강기정 씬 타나... 통합엔 덕담·선거 연대엔 말 아껴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와 또 다른 출마 예정자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강 시장은 김 후보에게 "통합 제안 자로서, 마무리까지 잘했으면 한다"는 덕담을 건네 역사적 통합 특별시의 기틀을 마련한 두 주역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양측은 차질없는 행정 통합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선거연대에 대해선 민감한 듯 말을 아꼈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후보등록 후 처음으로 광주시청을 공식 방문한 뒤 시장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3층 시장 집무실에서 강 시장, 고광안 행정부시장, 김영문 경제부시장과 함께 환담했다.

김 예비후보와 강 시장은 박창환 전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최근 기획재정부 총괄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겨 통합특별시의 국비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과거 통합 추진 과정 등에 대해 환담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가 통합을 제안하자 강 시장께서 즉각 받아들여 정말 신속하게 통합을 이뤄냈다"며 "전남과 광주가 아니면 그 어느 지역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이 아니었으면 결코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도 "김 예비후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저 역시 주변에 말을 자



김 예비후보, 13일 광주시청 공식 방문해 40분 환담 강 시장 "통합 제안했으니 마무리까지 잘해야" 덕담

주 한다"며 "최근 전남을 돌아다녀보니 광주와 전남의 장점을 잘 엮어내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또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이 모두 통합이 어려워진 것을 보면 광주와 전남이 참 대단하다는 생

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화기에예하게 덕담을 주고 받은 통합의 두 주역은 자연스럽게 민주당 경선 관련 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예비후보는 "통합은 시장·지사가 손을 맞잡고 만들어 낸 역사적 쾌거"라며

"선거 과정에서도 (이를 잊지 말고) 상호 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시장도 "김 후보가 시작했으니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30여 분 간의 공개 면담 뒤 10여 분 간 별도 대화를 나눈 두 주역은 상호 이름과 하이팅을 외치며 선거 승리를 기원했지만, 후보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말을 아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통령 "2차 공공기관 이전, 흠뻑리듯 분산 안돼" "지역성장 에너지, 모닥불처럼 모아야 힘 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가끔씩 좀 집중하자"며 "흠뻑리듯 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명하게 얘기하게 되면 결국 전부 다 흠뻑리듯 분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국가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그렇게 흠뻑리듯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산업화 시기의 수도권과 재벌 중심의 '집중 투자'가 자원 부족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언급하며 "이 구조를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다. 공정한 나라, 평등한 나라, 투명한 나라, 민주적인 환경이 오히려 이제 국가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시대를 맞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성장에 활력을 만들어낼 만한 에너지를 모아야 힘 받는다. 마치 모닥불처럼 말이다"라며 "이걸 (잠정) 한 개는 여기, 한 개는 저기 공평하게 나눠놓으면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거론하며 "너무 많이 분산이 돼서 지방에 가면 그냥 덩그러니 공공기관 하나만 따로 놓고 있고, 지역과 섞이지도 못하고 주변을 끌어들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어쨌든 나라가 살려면 지역에 중심이 생겨야 되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성장해서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좀 집중을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 이전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보다 정책적 성과를 우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요소만 고려하면 (공공기관을) 여기저기 나뉘었을 때 표는 된다"면서도 "문제는 결과적으로 성과를 별로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민이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건 일종의 실패"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정책은 막 여러 군데 나누기보다 집중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뉴시스

## 민형배 "주 4.5일제·상병수당 도입... 일하기 좋은 도시"

### 이재명 정부기조 발맞춰 '5대 핵심 노동정책' 제시 "아프면 쉬고, 안전하게 일하는 전남·광주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이 13일 "주 4.5일제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전남·광주를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5대 핵심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5대 노동정책은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주 4.5일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AI·기후 산업전환 대응이다.

민 의원은 우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추진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정부 시범사업에서도 전남·광주 지역은 순전을 제외하고 대부분 배제된 상태다.

주 4.5일제도 약속했다. 통합특별시 출자·출연기관부터 시범도입해 효과를 검증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장시간 노동은 저출

생, 건강 악화,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인간답게 사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구체화했다. 민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을 추진기로 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연결하는 권역별 노동행정 협력 체계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위험 현장 노동자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 플랫폼·특수고용·이주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 지원을 위한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계획도 내놓았다. 재단은 노동상당, 권리 구제, 노동 교육, 정책 연구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기존 노동권익센터는

재단 산하 사업소로 운영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AI·기후 산업전환 대응 노동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차, 배터리, AI 등 신산업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직무전환 교육과 고용유지 지원을 연계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민 의원은 "아프면 쉬고, 안전하게 일하며, 산업이 바뀌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광주시, 특별시 7월1일 출범 대비 행정·법제·재정 통합 추진

광주시가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행정·법제·재정 등 핵심 통합과제를 발굴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중심으로 법제 정비, 재정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우선 통합 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양 시·도의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25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특별시 운영에 걸맞은 단일 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시행령 78건의 초안을 마련해 현재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

전남·광주 자치법규 2500여건... 단일 법체계 구축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비... 통합예산 구조 설계 도로·안내표지판 1만6000여개 단계적으로 정비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148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재정 분야에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 현황을 정밀 점검해 통합 예산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와 보탬e 등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작업을 추진해 예산 집행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기반시설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공인 2600개와 행정 공부 72종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 및 안내표지판 등 1만6000여

개 시설물에 대한 정비 목록을 확정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광주김치타운에서는 '전남·광주 농정부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양 시도 실국별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특별법 통과로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행정·재정·시스템 등 분야별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시민들이 통합 후에도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민주, 광주 북구청장 8인·남구청장 5인 예비경선 후 본경선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북구청장과 남구청장 경선을 노컷오프 원칙 아래 각각 8인·5인 예비경선으로 치른 뒤 5인 본경선과 2~3인 본경선으로 압축한 다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기로 했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남 제236차 최고위원회를 열고 광주 북구청장, 남구청장 예비경선 안을 의결했다. 노컷오프 기조에 따라 공모 신청자 모두 예비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최대 관심사 중 한 곳인 북구청장 경선의 경우 김대원, 김동찬, 문상필, 신수정, 오주섭, 정다운, 정달성, 조호권(기나

남구, 2·3위 격차 5% 미만 시 3인 본경선 본경선 과반 득표자 없을 시 결선투표로

순) 후보 8인이 예비경선을 치른 뒤 하위 3명을 제외한 5명이 본경선을 치른다.

남구청장 경선의 경우 김병내, 김용집, 성현출, 하상용, 황경아 후보가 5인 예비경선을 치른 다음 상위 2명이 본경선에서 맞대결한다. 단 2위와 3위 간 점수차가 5% 미만일 경우에는 3인 본경선으로 진행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치르고, 결선은 2인 맞대결이

유력하나 최고위 추가 논의에 따라 3인 결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비경선은 관리당원 100% 온라인투표, 본경선과 결선투표는 관리당원 50%+ 시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된다.

예비경선 후 탈락 후보와 본경선 후보 간 합종연횡과 정략연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제49회 보성 다향 대추축제

보성말차! 젊음을 담다, 세계를 담다!

2026. 5. 1. (금) - 5. 5. (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차문화행사, 체험행사, 전시/공연, 부대행사 등

- 제49회 보성군민의 날 5. 1. (금) 보성군문화예술회관 기념식, 군민의상 시상
-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2. (토) - 5. 4. (월)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 전국관소리·고수경연대회, 주모제
- 제22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5. 2. (토) - 5. 4. (월) 흥성면 용반리 일림산 일원
- 제104회 어린이날 행사 5. 5. (화) 한국차문화공원 먹거리,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 제21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2. (토) 보성공설운동장 풀,히프, 10km, 5km

주최: 영농조합법인보성차생산자조합  
주관: 보성다향대추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남도, 보성군, 한국관광공사